

KCB 갤러리 - 나누고 싶은 모습들



• 2008년 교인 전체 수양회



• 2008년 교인 전체 수양회



• 은혜 마을 수양회



• 청년 2부 수련회



• 청년 1부 임원회



• 중 고등부 오픈 하우스



• ECC 공사 전경



• 2008년 신임 제직 안수식

보스톤 한인 교회 소식지 10월호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Vol. 38 No.5
2008.10. 5



사랑의 마음 의망의 말

한울타리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 617-739-2663
F: 617-739-1366
www.kcboston.org
담당목사: 이 영 길



제직 안수 및 임직예배

2008년도 제직 안수 및 임직식이 9월 21일 주일 본 교회당에서 있었습니다.



신임 장로님으로 안태준, 홍동욱 집사님이, 김종희, 김화옥, 이유택, 최현구 집사님등 네분이 안수 집사로, 이숙재 집사님이 권사님으로 임직되었습니다. 새로운 임직자들은 “장로로서, 권사로서, 혹은 집사로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친구없이 외롭고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힘이 되어 도와주고, 나아가 주를 섬기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기” 를 서약했습니다.

새 임직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은 마침 이곳을 방문중이신 니카라과 선교사로 계신 이동홍 목사님께서 디모데 후서 1:16의 말씀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로써 보스톤 한인교회는 총 제직원수 시무/휴무 205명 (장로 20명, 권사 24명, 안수집사 78명, 서리집사 82명)의 제직들이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0월호차레

- ☞ 제직 임직식
- ☞ 건축위원회 소식
- ☞ 담임목사 메시지
- ☞ 당회소식
- ☞ 건축모임 위원회
- ☞ 니카라과 단기 선교
- ☞ 전교인 수양회
- ☞ 교육과 헌정과 사상에 대한 기도문
- ☞ 안수집사 감사
- ☞ 웨마의 밤
- ☞ English Night 소식
- ☞ 여선교회 소식
- ☞ 은혜마을 소식
- ☞ 청년 2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 ☞ Youth Group 소식
- ☞ 애바라기 주일학교 소식
- ☞ 부부영년부 소식
- ☞ 교우 동행
- ☞ 알림
- ☞ 새교우 환영반 소식
- ☞ KCB 갤러리

건축 위원회 소식

지난 9월 ECC 건축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Harvard St.쪽에 짓고 있는 ECC 건물의 기초 공사가 마무리되어 외벽이 쌓아져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Harvard St. 쪽 마당에 있었던 흙을 제거하는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주 앞으로 Gas burner로 대체하는 일이 완성될 예정이며, 겨울이 오기 전에 Harvard St.쪽 건물의 기초작업과 기본 골격 작업이 완성되어 외부 공사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Holden St.쪽 임시 축대 설치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이를 위해 교우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워지는 주님의 전’

이영길 담임목사

요즘 저는 어느 때보다도 흥분된 마음을 안고 교회에 출근하곤 합니다. 늘 아침마다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귀하긴 하지만 요즘엔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로 인해 더 마음이 벅차 오르곤 합니다. 지난 주부터는 철재기둥이 올라 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저는 철재기둥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쌓아 올리는 일꾼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 눈에 보이는 모든 일하는 분들을 생각하며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지난 주 철재 기둥을 쌓아 올리는 일꾼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데 새로운 사실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건축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고 또 각자가 맡은 일들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땅을 파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콘크리트를 붓는 일꾼이 있었고 하수도 파는 일꾼들, 브로커를 쌓아 올리는 일

꾼들 철재 기둥을 올리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지 못했던 많은 일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일을 하였지만, 그러나 실상 한 가지 일을 이루는 분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전을 세우는데 어느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분이 없으셨습니다.

이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교회를 세우시는 건축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그 일꾼들마다 주어진 일들이 다 다르겠구나. 모두에게 아주 소중한 일들을 맡기겠구나.”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도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이던 안 보이는 일이던,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실하십시오.

당회 소식



1. 부부청년부를 담당하실 교역자로 소기범 목사님이 새로 임명 받으셨습니다.
2. 1부 찬양대 반주자로 김상영 교우께서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3. 장로, 안수집사, 권사 안수: 9월 21일 안태준, 홍동욱 두분을 장로로, 김종희, 김화옥, 이유태, 최현규 네분을 안수 집사로 안수하기로 하였으며, 권사님으로 이숙재 권사가 임직 받기로 하였습니다.

4. 베다니 장로교회가 9월 28일 창립 5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리고, 장소 이전으로 인한 파송(Send-off)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베다니 장로교회는 이 기념 예배후 10월 첫주부터 Lawrence School로 이전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영어회중으로 세워져, 1.5세 영어 사용자들을 위한 교회로서 성장하여 지난 2003년 베다니 장로교회로 독립하였었습니다. 앞으로의 ministry를 위해 예배 시간을 10시로 바꾸고,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 교우 환영반 소식

이영길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새교우반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신 모든 분들이 한번은 꼭 참석 하셔야 하는 아주 귀한 모임입니다. 첫째 주는 간단한 자기 소개로 서로를 알리는 시간을, 둘째 주는 “말씀과 함께”라는 교재를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그리고 셋째 주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9월 교육자 명단

장준연, 전아사: 재료 공학을 전공 하였고 한국 KAIST 에서 오래 근무 하시다가 MIT 반도체 연구 소장으로 오셨고, 두자녀가 있으시며 중앙 4구역에 속 하십니다.



주재은: 보스톤에서 오래 사셨고 하버드 교육학 연구실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교인위원회에서 봉사하시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임미정: 아이들 교육 때문에 시드니에서 이주 하였고 남편은 아시아나 항공 기장이십니다. 고등학생인 자녀가 둘 있고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이재익, 김명은: 한국에서 두분 다 치과 의사 이셨고, 김명은 교우님은 BU 치과대학 3학년으로 편입해서 공부 중이며 3자녀가 있습니다. 부부청년회 속 하십니다.

김종성, 강정현: 보스톤에서 20년 사셨고 BU 교수로 계십니다. 두 장성한 아들을 두셨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귀한 만찬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네번째 모임은 김선혁, 김원옥 집사님 가정에서 가졌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글 나누기

이맘때는 늘 아름다웠다

남서풍에 향기가 실려오고,
귀뚜라미 울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밤하늘의 별자리가 바뀌는 이맘때는 늘 아름다웠다.
어떤 맑은 날, 편지함 옆의 흰 자작나무 위로
흰 기러기떼가 날아가는 광경은
숨 막힐 만치 아름답다.

타샤 튜더의 《행복한 사람, 타샤 튜더》 중에서

*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요.

한가위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이맘때는 정말이지 늘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고 맑은 날이라 해도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기러기떼가 날아가는지, 별자리가 바뀌는지 도무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만 그 숨 막히는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교우 동정

- 출산: 이명준/신혜원-현우(Justin)
- 소천: 심기선집사 모친(한국)
김병수/임소영 부친(한국)
김여영집사 모친(한국)
김난희집사 부친(한국)
- 이주: 김만규/김미진 전도사(버지니아)
조경필/조안나(한국)

- 김민정 집사께서 9월 27일 카네기홀에서 바이올린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10월 10일(금)에는 보스톤 NEC의 Jordan Hall에서 오후 8시에 연주회를 가집니다.
- 광고: 권사회 부회장으로 강영숙 권사께서 섬겨 주시게 되었습니다.

세계 성찬 평화 주일

오늘 10/5(주일)은 세계 성찬 평화주일로 지킵니다. 매년 10월 첫주에 드리는 예배는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성찬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됨을 기념하는 세계 성찬 평화주일입니다. 이 날 드리는 평화 헌금은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에 쓰여집니다. 그동안 아프리카의 기아와 가난, HIV/AIDS 문제를 위한 기금으로, 몇 년 전에는 카트리나 허리케인 구제 등 각종 사랑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들에 쓰여져 왔습니다.



보스톤 청년 연합 부흥회



2008년 보스톤 청년 연합부흥회가 “꿈꾸는 청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뉴잉글랜드 한인 교회 협의회 주관하에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케임브리지 한인교회에서 열립니다.

- 저녁 집회는(금, 토, 주일 오후7시) KOSTA 강사로 활동을 하시는 김원기 목사님(워싱턴 펠로십 교회)께서 인도해 주시고, 선택식 세미나는(주일 오후 5-6시 15분) 세가지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 (1) “학업과 신앙” /김성현/ SUFFORK 경제학 교수,
 - (2) “이성교제와 결혼” /장요심 /KOSTA 세미나 강사,
 - (3) “삶으로 드리는 예배” /정인수 /FMNC 선교

보스톤 청년들의 영적부흥을 위한 이번집회를 위해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성전건축에

건축 모금 위원회

교회에서 걸어서 5분거리에 사는 우리 식구에게 요즘 또 다른 재미가 생겼습니다. 거의 매일 교회앞을 지나면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확인하는 재미입니다.

어느날 교회앞 Harvard St.를 지날 때 깊이 땅이 파여지는가 싶더니,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콘크리트 기초공사와 함께 쭉쭉 올라가는 건물 외벽을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곧 들어설 “ECC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기쁨으로 ECC 건축의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와 강석회사 여러분들의 수고와 땅의 결실임을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ECC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은 평일에는 여기저기 일하시고 주말에는가족과 시간을 갖기 위해 뉴저지로 가는, 편치않은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객지생활이 편할리 없겠지만, 이분들의 수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이 담긴 점심 식사 대접을 준비하려합니다.

돌아오는 10월 15일에는 중앙 4구역(구역장: 고진수 집사)에서 이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맞나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여 주실 예정입니다.



2주에 한번, 혹은 한달에 한번 교회 각 기관에서 돌아가면서, ECC 건축을 위해 땅을 흘리시는 강석회사분들을 위해 점심을 대접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우리에게 ECC 건축의 특권을 주시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이 사명에 참여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교회 ECC 건축에 동참하고 싶으신분들은 모금위원회(안태준 장로, 김성현 집사, 김준구 집사)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니카라과 선교를 다녀와서...

김은별 교우

작년 5월 처음에 KCB 청년1부에 등록했을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청년 1부에서 시에라리온 선교팀이 선교여행을 앞두고 준비하고 같이 기도하던 때였는데요. 그때 그 선교팀이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스러워 보였습니다. 문득 나도 언젠가는 선교여행을 떠나보고싶다는 생각을 갖게되었고, 그 막연한 바람이 지난 여름 니카라과 선교여행으로 이어지게된것 같습니다.

니카라과를 가기로 결심한 3월부터 7월25일까지는 선교활동을 위한 트레이닝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1부 그리고 Youth Group(YG) 친구들은 교육팀을 맡았습니다. BBS와 1대1 전도에 대한 일을 연습했는데, 서툴렀던 스페니쉬로 찬양과 전도를 해야했기에 그 점이 힘들었던 기억이 남지만 5개월간 함께한 기현과 주영 그리고 YG친구와 함께 준비하고 기도하고 격려해주면서 그리고 성경을 더 많이 배우며 준비하는 시간동안 또한 은혜스러운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7월26일에 출발하여 8월2일까지 7일간의 사역동안 많은곳을 방문했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나는 일이있다면 첫째날에 방문했던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BBS를하고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재미있는 게임들도 하면서 하루를 함께보내는 동안 더운날씨와 지친 몸, 서툰 스페니쉬가 힘들때도 있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심을 느꼈고, 힘들다가도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사역하는 동안에는 정말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다시 나오는지 더 열심히 찬양을 하고 위선들을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마지막 마을에서 스페니쉬로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마을 주민들과 함께 손잡고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며,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나누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제 마음깊이 벽찬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니카라과 선교를 통해 저는 너무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받고 있고 큰 축복들을 축복

이라 생각해보지못했던 것들에 대해 너무 부끄러웠고, 니카라과 현지인들의 맑고 순수했던 눈빛들을 통해 그들은 물론 가난하고 부족한 땅에서 물질적으로

는 많이 부족하게 살고 있지만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더 많이 채워주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저에게는 생의 가장 첫번째 선교가 되었던 이번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통해 너무나도 많은것을 보고 듣고 또한 경험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 한번은 내가 선교를 다녀와야겠지.. 하는 그런 단순한 마음으로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선배들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로 도와 주는 것에 만족했어야 했던 저는 신앙의 선배님들과 친구들의 권유로 니카라과 선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여름은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차라 정말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지만,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믿고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니카라과를 떠나기 전 준비 과정에서, 그곳에서 했던 선교활동, 또한 다녀와서 가지게 된 저의 소중한 기쁨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이해 할 수 있는 한계보다 너무나 높은 곳에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스스로 저는 니카라과 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도 없었을 뿐더러 선교라는 것이 저에게 현실로 다가 올 줄은 꿈 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너무나 더운 날씨속에,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주목을 집중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정말 한마디로 chaos 였던 첫날도 그 순간을 너무나도 즐기고 있는 제 자신과 함께한 선교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던 순간입니다.

김 주영 교우

선교활동을 하던 일주일 중 하루는 여성 수용소에 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겁이 난 것이 사실입니다. 편견들로 인해 처음에는 그들에게 마음을 여는 데 다른 곳 보다는 시간이 조금은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일 대 일 전도를 하는 가운데 저는 제가 먼저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수용자를 위해, 그 수용자는 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그들은 스페인어로.. 그순간 상상 할수 없었던 기쁨을 느꼈습니다. 제가 할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 하게 되리라 생각 조차 못했던 일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손을 내민 사람의 손을 잡아 줄수 있는 것 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 할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미국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땅에서 부족함 없이 학교생활도, 신앙생활도 하고 있지만, 단지 부유하게 자라났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축복 받은 자 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크게 느끼는 기회였습니다. 니카라과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과 기도를 드릴때에, 그들이 우리보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할 지 모르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그 어떤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모습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비전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모습을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또한 앞으로도 실천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솔직히 선교를 하면서 정말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힘든 시간들이 그렇지 않은 시간들보다 많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저에게 줄수 없는 귀한 기쁨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가진자들 이라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러 갈수 있고, 또한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큰 기쁨을 가진자들 임을 잊지 말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해바라기 주일학교 소식



110여명의 어린이 교인들이 주일을 성수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에 어머니, 아버님을 초대합니다. 기회가 되시는 부모님들은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길 권합니다. 작은 소예배실을 꽉 채운 어린이들의 뜨거운 찬양과 기도,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받아적는 모습에 은혜를 받곤 합니다.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는 아기들, 유아반 어린이들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귀한 시간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새학기를 맞이하여 늘어난 어린이들로 인해 2번에 나눠서 드리는 예배에도 이제는 어린이들이 앉을 자리가 부족합니다. 주일학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새 교육관을 예비해두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새 교육관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헌신적으로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주일학교를 섬

기시는 귀한 선생님들께 하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주시는 귀한 주일학교의 새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와 격려로서 주일학교를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분들:

담당교역자: 김선희 전도사
 담당집사: 김동규
 예배부: 김엽, 이승연, 오지성, 김찬호

영아반: 박강희
 유아반 1: 김정혜
 유아반 2: 박선희, 김채린
 유치원: 진정원, 강지연
 1학년: 이미정
 2학년: 에스더 리, 김진섭
 3학년: 이현주, 강민형
 4학년: 곽서영
 5학년: 이은주

부부 청년회 소식

9월부터 소기범 목사님께서 부부청년부 교역자로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소기범 목사님은 장로교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도미하시어서 시카고 신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전공: 영성과 조직신학) 받으셨고, 현재 뉴욕에 있는 신학대학에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사모님으로는 BU에 계시는 최희안 목사님이 계십니다. 몇년저 저희 교회에 처음 출석하신바 있고, 대예배때에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으신 분입니다.

앞으로, 부부청년부가 더욱 활기있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소목사님을 기쁨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부부청년부는 새롭게 모임을 재충전하여, 소목사님과 함께 토요일 성경공부를 수요일 저녁 성경공부 (Room #4)로 변경하여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부청년부원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 2부: 수련회를 다녀온 후

나 장현 교우

지난 9월19일-21일 3일간 저희 청년 2부에서는 ‘광야’란 주제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사막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막(desert)과 광야(wildness)는 어감의 차이가 있지만 사막이란 좀 더 직접 눈으로 그럴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전에 유타에서 공부를 한적이 있습니다. 유타주 남쪽에는 사막 지형으로 형성된 국립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익숙한 그랜드캐니언이며 브라이스, 자이언스 캐년 정말이지 끝이 없는 건조한 땅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곳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자라지 않고 단지 사막을 가로지르는 길만 있을 뿐입니다. 차 밖을 나가면 몸을 감출 그늘 하나 없는 곳으로 기억됩니다.

이런 경험이 제 자신을 사막의 한 가운데 옮겨 놓는 상상의 작업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

러분은 삶 속에서 이런 사막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이지 사막의 한가운데 내몰려진, 주변에 나를 도와줄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는 낭떠러지에 매달려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라곤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 ‘경외’ 하는 마음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그렇게 한 것 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모른체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막을 헤쳐나갈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사막을 다 지난 후에도 이 주신 지혜로 세상의 지식에 억눌린 것이 아니라 자유하며, 누리며, 웃으며 살 수 있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막 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Youth Group PTA meeting and Open House

김 성현 집사

최근 Ransom Youth Group에서는 두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9월 21일에는 2008학년도 학부모회의 (PTA meeting) 이 있었습니다. Youth group 전반에 관해 학부모님들께 소개를 하고 새학년에 있을 여러 행사에 대해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일년동안 PTA 회장으로 전현임 집사님 (동석, 혜민 어머니) 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소개도 있었습니다.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역자: John Chung (정한진) 전도사
 담당집사: 김성현 집사
 교사: 6,7,8학년 — 지민형, 이동운
 9, 10학년 — 장성화
 11, 12학년 — 송치만, 황동준
 한국어반: 김주영
 새교사 : 김영미(Mimi), 김영순, 이영은 (Ruth)

9월 마지막 토요일인 27일에는 2008학년도 Open House행사가 있었습니다. 새로이 Sunflower Sunday School에서 Youth Group으로 올라온 6학년 학생들을 환영하고, 새학기를 맞이하여 학생들끼리 친



목을 도모하는 자리였습니다. 약 20명의 학생들과 10여명의 선생님들이 토요일 오후에 모여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학생들끼리 준비한 여러가지 게임과 놀이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몇몇 학생들은 그날 있던 쉼마의 밤에 참석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린 티를 벗지 못한 우리 새로운 6학년 학생들이 Youth Group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Youth Group학생들과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전 교인 여름수양회를 되돌아 보며..

김 태만 집사

필그림 과인 컨퍼런스센터는 어느덧 우리교회 전 교인 여름수양회를 위한 장소가 된듯 합니다. 여러 번 가서 새롭지 않다는 생각도 있지만, 말씀이 새롭고 그에 따른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는 이곳! 처음에는 찾아오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오고 가는 길까지도 익숙한 곳이 된 이 수양회 장소를 답사할 때는 옛 정든 곳을 찾아가는 것 같아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특히, 올해에 많은 교인분들이 참가 신청을 하셨기에 좀 더 세심하고 좀 더 많은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답사길에 나섰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지도자는 그가 속한 집단이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지도자가 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지도자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교회 출신의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양회에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우리교회 출신의 전희원 목사님께서 ‘우리 교인들과의 만남이 가슴 설레는 만남’이라고 하셨을 때, 그 목사님의 감격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런 역사와 관련이 있는 이 교회의 신도인 저 역시 그 만남이 가슴 설레는 만남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오래 전에 우리 보스톤 한인교회를 교역자로 섬기신 바 있고, 현재는 아틀란타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시무하시는 김정호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이고 우리교회처럼 새 성전 건축을 진행 중이기에 이번 수양회를 통해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거룩한 회복 -깊이 더 깊이, 다시 또 다시”이라는 주제로 ‘거룩한 고백의 회복’, ‘거룩한 사랑의 회복’, ‘거룩한 존재의 회복’, ‘거룩한 꿈의 회복’ 그리고 ‘거룩한 소명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가운데 우리교회에서 있었던 경험담 등을 예화로 넣어주셔서, 예전에 같이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들께는 아련했던 추억을 새로이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고, 그 당시 없었던 저 같은 교우들에게는 교회 역사의 비밀(?)을 알아낸 것 같은 흥분도 맛보았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지

금 섬기시는 교회의 예전의 모습을 이야기 하실 때는, 현재 우리교회 이야기를 하신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 자신의 형식적인 교회생활을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님께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며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벌써 그 감동이 기억에서 아스라이 사라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번 주일에는 교회에서 수양회 강의가 녹음된 CD를 구해서 들어야겠습니다.

수양회 기간 동안 찬양의 밤, 조별 발표 준비, 공동체 훈련을 하면서 전교인이 하나님을 느꼈고 서로 인사만 주고받았던 이웃 교인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찬양의 밤을 통해서 열린 예배에서나 느낄 수 있는 가슴 벅찬 찬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조별 발표에서는 모두들 마음껏 즐기며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주어진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멋진 발표를 할 수 있는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각 팀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팀웍으로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우들이 한 가족이 됨을 느꼈습니다. 공동체 훈련도 조별로 진행되었는데, 성적이 좋은 조에게는 푸짐한 선물이 주어졌고, 언제나 선물을 받을 때면 실제 선물보다 몇 갑절 더 큰 즐거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수양회 준비를 담당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수양회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하지만 총진행 하도록 맡겨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일을 담당하면서 겸손과 진실함으로 나에게 좋은 분이 되신 수양회 준비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나의 부족함을 보완하여 주시고, 힘들고 굶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장양술 장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육관 헌정과 사용에 대한 기도문

신임 안수 집사 김 중희, 김 화옥, 이 유택, 최 연구

하나님 아버지, 50여년 전 이곳 보스턴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지금껏 성장할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에 경배하며, 주님께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저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양육하도록 인도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자복합니다. 어른이란 말로, 아이들을 억박질렀음을 고백합니다. 어른이란 짧은 생각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이신 예수님께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다가서는 아이들을 막지 말라 하셨던 주님. 아이들을 유난히도 사랑하셨던 주님. 아이들과 같은 친진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하셨던 주님. 주님의 말씀과 보여주심을 따르고자 합니다.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시던 주님.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강박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 곳에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짓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시작된 교육관 건축이 주님의 뜻대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흙 한 덩이, 벽돌 한 장까지도 모두 주님의 손길과 숨결이 같이 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사람의 생각과 뜻을 앞세워 주님의 일을 그리치지 않도록 건축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의 주님께 이 교육관을 온전히 헌정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이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키우는 데에 최우선으로 쓰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아이들로 양육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곳에서 배우고 자라난 아이들이 이곳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곳에서 배우고 익힌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교역자와 선생님, 그리고 부모들에게 지혜와 인내와 주님을 향한 갈망을 허락하시어, 그들을 통해 배우고 자라난 아이들이 성령의 열매로 충만케되도록 하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조국과 민족의 일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며, 사랑으로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정의와 자유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아이들로 양육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대물림되고, 이 아이들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힘써 일하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마을 소식

Graceland held its dedication service on September 28. To our members, the dedication service was a time to reaffirm our faith and renew our resolve to serve. But, most of all, it was an opportunity to remember and thank the Lord for proving us with fellow brothers and sisters to share our love for Christ and for each other.

As offertory anthem, we brought all of our children to join us in praise. Three weeks of practice paid off! The children were wonderful. As I looked at the smiles on the faces of the congregation, I was once again reminded of the importance and relevance of one of our church's visions - "Three generation growing together."

Guest pastor, Reverend Paik delivered a message that reminded each of us the reasons we as members of Graceland and as Christians live - to serve others.

After the service, the group also held another very important event. We elected new officers who will serve the group during 2009.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President: Deacon Jung Il Jin
- Vice President: Deacon Kim Woo Jin
- Director: Deacon Lim Bora
- Treasurer: Deacon Son Joo Youn

We feel very fortunate to have these four to lead us in growing our faith, in serving the church and in loving each other.

Lastly, I would like to remind everyone that Graceland is open to anyone who's 35 or older. Please come visit us any Sunday at 1:40 in Children's chapel. We hope to see you there.

In Christ,

Sung-Jun Pak
Outgoing President Graceland

지난 9월 28일 은혜마을을 헌신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은혜마을 식구들에게 있어서 이번 예배는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위한 다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주님의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헌금특송 시간에는 은혜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나와 부모님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3주간의 특별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미소를 짓는 교인들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을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3세대가 함께 하는 교회."

초청 목사로 이날 수고해주시신 백목사님께서서는 설교를 통해 은혜마을의 식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일깨워주셨습니다.

헌신예배후, 2009년도 은혜마을을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진을 뽑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임원으로 수고해 주실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장: 정일진, 부회장: 김우진,
총무: 임보라, 회계: 손주연

주님께서 내분을 주신 것은 큰 은혜이며, 믿음을 키우고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데 있어서 이 네분이 앞으로 은혜마을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마을은 35세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항상 열려있으며 2부 예배후 1시40분 소예배실에서 언제나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마을 2008년 회장 박성준 집사



2008년 은혜마을 수양회를 돌아보며...

편 계연 집사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몸을 이룰찌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창 2:24-25)

은혜마을 가족들이 함께했던 2008년 수양회의 첫 설교의 말씀으로 글을 엮니다.

우리 은혜마을 18가족은 지난 9월 5일(금) ~ 6일(토), 1박 2일 일정으로 Groton에 있는 수양회관에서 조유연 목사님, 장위현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치료”란 주제로 은혜 가운데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난생 처음하는 홀로서기로 부모를 떠나 이 곳 낯선 보스톤에서 한 남자와 가정을 꾸리는 것이 막연히 겁이나던 10여년전에는 이런 주제의 설교엔 귀가 솔깃하곤 하였는데, 12년이 훌쩍 지난 지금,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며 무엇을 위해 가는지도 모른채 정신없이 생활에 쫓기며 살다보니 사실 결혼의 의미와 본질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은혜마을 수양회를 통하여 꼭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 저를 비롯한 은혜마을 가족들은 부모를 떠남과 동시에 반려자와의 또 다른 하나됨이란 인생의 커다란 과제인 “결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되어야 하는지, 또한 각자에게 허락하신 반쪽을 어떻게 섬길 것이며 수많은 갈등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영적 열매를 맺을 것인지에 관하여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양회 매순간 순간들이 모두 의미있는 시간이었으나, 가장 잊지 못할 시간이었던 “부부 서약서” 순서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는 안성완 집사님의 준비로 이루어졌으며, 진행되는 2시간동안 여기저기서 하염없이 흐르던 눈물과 끊이지 않는 흐느낌의 소리로 엄숙 그 자체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은혜마을 가족들은 누구나 결혼식을 통하여 평생 서로만을 사랑하며 살기로 약속했던 경험이 있지만,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도 크게 보여 앞으로 그 사람과 평생 함께 할 수 있다는 기대와 행복으로만 가득했다면, 이번 수양회때 가졌던

부부서약서 시간은 결혼이란 달콤함 뒤에 감추어진 크고 작은 역경과 아픔을 몸소 경험했기에 저희에게 더 큰 의미가 있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부부 서약서를 읽으며 목이 메어 한동안 글을 읽지 못하고 계속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가며 조금씩 읽어 내려가던 저의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와 숨결을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니 제가 살아가는 동안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때 남편의 고백을 여러분과 나누며 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계연씨

오늘까지 우리가 부부의 인연을 갖고 지내게 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당신의 헌신적인 사랑과 기도, 부족한 나를 믿고 따라와 준 당신의 인내와 겸손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 박성준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온 몸과 마음을 바쳐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며 보호할 것을 다시 서약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친히 아시고 이에 합당한 남편, 저의 반쪽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수 집사 답사

이 유택 집사

너무 두렵워서 기도를 시작했고, 이젠 너무 감사 해서 주님께 기도를 시작 하려고 합니다.

집사 안수 및 임직 예배의 날짜가 9월 21일 이라는 이메일을 받고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분주해 졌습니다. 그동안 김종희, 김화옥, 그리고 최현구 안수 집사 후보생 분들과 너무 재미있게 교육을 받아 잠시 잊고 있었는데, 막상 날짜를 받고 보니 너무 두려워 졌습니다.

저는 22년전 겨울 어느날 인가 부터 기도하지 않기로 결심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도 해도 기도 하는 저의 바램이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 이었습니다. 저는 성경도 읽지 않았습니 다. 왜냐하면 읽을수록 답을 찾기 보다는 “어떻게” 라는 질문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 이었습니다. 또한 늘 그래 왔듯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안수 집사 교육을 받으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 조금씩 고쳐가고 또 그때가 되면 조금 진전이 있으려니 생각 했는데, 별로 달라진것이 없었습니다. 안수 예배가 있기 1주일 전 어느날 목사님께 편지를 쓰려는 생각 까지 했습니다. 준비가 덜 되었으니 다음 기회를 위해 다시 준비 하겠다는... 아직도 소리내어 기도 하지 못하여서 였는지, 아직도 성경을 읽으면 깨달음 보다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였는지, 아니면 사랑 보다는 욕심과 죄로 가득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였는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많이 두려웠던 모양 입니다. 저는 안수받기 전날 저녁 너무 두려워서 기도하기를 시작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한 많은 얘기를 주님께 드리기 시작 했습니다. 22년만에 다시 마음의 기도를 시작 한 것입니다.

안수를 받은 다음날 아침에 일터로 향하는 길에 갑자기 너무 행복하여 가슴벅찬 뜨거운 눈물을 느꼈 습니다. 사랑스런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여 너무 행복했고, 제가 좋아 하는 일을 할수 있어 행복하고, 일터로 향하는 길이 예뻐 행복하고, 지나가는 다람쥐에게 길을 양보하는것조차도 행복했습니다. 가끔 이런 행복을 느끼긴 하지만, 그날의 행복은 아마도 주님께서 22년전 제가 기도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어 주신것이 너무 행복해서 벅차오르는 새로운 행복함을 느낄수 있었 습니다. 이젠 너무 감사 해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시작 하려 합니다.

주님,

감사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당신의 아들 삼으심을 감사 드립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의 증거를 제대로 받아 들이지 못한 이 어린양을 주님께 품에 다시 안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려워서 시작한 기도 이지만 이제 감사의 기도를 시작할수 있게 해주신 당신의 은총에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집사 직분을 감당 할때에, 제가 뜻하는 대로가 아니라 당신께서 뜻하신 대로, 당신의 도구로 사용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땅에 내려와 십자가의 고통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상록 기도회 야외 예배

상록기도회는 9월 14일 야외예배를 계획하였 습니다. 일기 예보와는 달리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인해 이날 야외회는 취소되고, 대신 교회 아래층에서 친교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집사회 친교부(김동숙 집-

사)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도시락으로 점심을 나누고, 웃놀이로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취소된 야외회 대신하여 10월 12일에 단풍놀이를 가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쉐마의 밤

건축 모금 위원회

쉐마의 밤이 지난 9월 27일(토요일) 저녁에 본당에서 있었습니다. 때 아닌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 속에서도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6시 30분 남서 1구역에서 저녁 식사로 준비한 치킨 데리야끼는 냄새는 물론 그 맛에 감탄과 탄성을 자아 내기에 충분하였고, 국수나 밥이나를 선택해야 갈등(?) 속에 “반반 섞어서 주시면 안되요?” 라는 절충안이 이곳 저곳에서 나왔습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 후, 쉐마 찬양단의 차분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시작으로 쉐마의 밤은 시작되었습니다.

초청 구역 이야기 시간에는 남서 2구역 교우들이 나와 인사를 드리며,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를 합창하였고, 참석한 교우들이 모두 일어나 손을 들고 아이들을 위해 축복송을 불러주었습니다. 이영길 담임 목사님께서서는 믿음의 가족으로 태어나고, 그 믿음이 3대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 교육관 건축,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시간을 가졌고, “고마와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와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를 소리 높여 불렀으며, 이후 친교실에서 차와 과일, 그리고 담소를 나누는 따뜻한 속에 쉐마의 밤은 저물어갔습니다.

English Night 소식

백 승안 집사

On September 20th, the English speaking small group had our “English Night” meeting at the home of Jeff and Hey Seong Kim. It was a great time of food and fellowship at their beautiful home in Southborough. Our hosts provided a lot of great food, and each of the guests brought some dishes to share and by the end we were stuffed!

After dinner we had a short time of praise, singing various praise songs in English. Then we had a short discussion on what “Friendship” means in our lives. We talked about how each of us has friends and the challenges and rewards of making and keeping friends. Then Rev. Lee talked to us about various ideas for our group and what he hopes we can accomplish over the next few years. One of the things he mentioned is his vision that the group establish relationships with other ethnic or racial groups in the Boston area as part of the outreach mission of our church.

In all, about 6 families showed up and we had a great time. If you are interested in joining our group or know someone who i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at hanpaik@yahoo.com or talk to any of our church staff.



마리아 여선 교회 소식



제 19회 연합 선교대회를 다녀와서...

지난 9월 20일 토요일,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여선교회 중 동북대회연합회와(KPW/SNE) 동부한인노회 연합회가(EKPW) 공동주관하는 제 19회 연합 선교대회가, New Jersey에 있는 팰리세이드 장로교회에서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우리 보스턴 한인교회에서는 다섯분이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런 개인 사정들로 2명의 회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었던 이날의 집회는, 조은성 목사님(팰리세이드장로교회 담임목사)의 “사명”이라는 은혜로운 설교 말씀과 함께 개회예배로 시작되었고, 주 강사님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 30년간 일선에서 선교하시다가 2006년부터는 이-

곳 미국에서 Global Educational Network(GNE) 대표, Asian Mission Association(AMA) 사무총장 및 Korean Internet Mission Network(KIMNWT) 사무차장으로 섬기고 계신 이 은무 선교사님께서 수고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5-9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라는 깨달음을 주님과 동시에 “한국선교의 과거, 현재와 미래”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오전의 강의는 “한국 선교의 역사와 변천사” 를 제1(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 제2(1955년 교단적으로 산발적 선교사 파송), 제3(1961년 첫 선교부흥집회, 1970년 선교단체에서 해외로 선교사 파송)의 물결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강의해 주셨고, 오후에는 오늘날 “한국선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기간 일선에서 직접 선교를 하셨기 때문에, 한국 선교의 현실을 정확하고도 예리하게 분석하셨으며, 이상적인 선교정책의 노하우(단 6:25-27)도 가르쳐주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주제강연에 이어, 이 선교사님의 집도하에 결단을 의미하는 성찬식 및 폐회예배가 있었습니다.

점심식사는 팰리세이드 장로교회의 여선교회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하신 비빔밥과 함께 좋은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모든 집회가 끝난 후에는 몸이 편찮으셔서 가료중이신 대회장님댁을 임원들과 함께 방문하여, 찬송과 안수기도로써 위로해 드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에스더 여선교회 소식

에스더 여선교회에서는 전교인 수양회에서 간식과 야찬을 준비했습니다. 수양회에 참석하신 교우님들을 위해 매 주제강연 후 마실 물과 커피, 수박등을 준비하였고, 출출한 밤찬을 위해 사발면을 마련하였습니다. 200여명 분을 준비하다보니 가지고 가야 할 양은 물론 부피도 컸지만 여러 교우님들의 도움으로 손쉽게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에스더 여선교회에서는 지난 9월 21일 제직 임직식 예배후 가진 전교인 오찬을 준비하였습니다. 각 구역에서 준비해주신 각종 비빔밥 재료를 가지고 500여개의 비빔밥 도시락을 만들어 전교인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료 준비에 정성을 다 해주신 구역 및 부부청년부 여러분과 도시락을 만드는데 손길을 보태주신 여러분, 그리고 물과 테이블 셋팅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청년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